



## 안락사/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하는 자살에 대한 토마스 콜린스 추기경 담화문 - 2016년 3월 1일

“환자들이 원한다 해도 치사에 이르는 약은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충고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

“살인 해서는 안된다.” - 탈출기 20:13

“자살을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위기의 기로에 서있는 당신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누군가가 당신 곁에 있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단지 몇 달후면 “죽음에 대한 의료 지원”과 같은 현혹적인 용어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하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하여 이 나라에서 공표될 것입니다. 연방 정부가 대법원의 결정을 시행하는 법률을 준비함에 따라 이 근본적인 변화가 끼칠 영향을 심사 숙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거나 혹은 서서히 다가오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자들이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약의 혜택을 받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과정을 연장시키는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런 치료를 거절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자를 죽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전역에 걸쳐 환자를 치료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의사들은 조만간 정반대의 일을 할 것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찬 보호와 치료를 통해 환자들이 받는 고통을 완화시키라고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라고 요청받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환자를 죽이는 것은 더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게 되며,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의료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2016년 2월 25일, 의회 위원회는 충격적인 법안을 만들 국회의원들에게 21 가지 건의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법은 단지 심각한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과 연세가 굉장히 많고 죽음에 가까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3년 후부터 미성년자들(18세 이하)도 안락사/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하는 자살을 허락하고자 하는 의도.
- 치매등과 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
- 정신병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안락사/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하는 자살을 하게 해 달라고 주장 하는 일.

- 가톨릭 병원, 장기요양 시설, 호스피스를 포함한 공공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안락사/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하는 자살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 (이런 요구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서비스의 근본 원칙들을 위반 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됨.)
- 환자를 죽일 것을 거부하는 의사들은 반드시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함.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이런 양심을 위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음.)

의사로 일을 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또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에 반대되는 일을 할 것을 강요받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종교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용인 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충실하게 돌보아 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입니다. 이 법안은 그들의 환자들이 죽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평합니다.

한 국가가 법으로는 제정했지만 제한된 역할 그 이상으로 가면서 이렇게 양심의 권리를 누르게 되면, 저는 양심을 거스르는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한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겠습니다. 그는 용기있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고용 했지만, 나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현재 캐나다인들의 겨우 30 퍼센트가 임종 간호(말기 환자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락사/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하는 자살은 비극이며 절대 받아들여 질 수 없습니다.) 죽음을 재촉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대신,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말기 환자 간호를 제공하고,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며, 자살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과는 달리 더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된 자신들의 삶이 이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염려를 연민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사회 정책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얼마나 기능을 잘 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야 할 가치를 이 사회가 정하게 되면, 쓸모가 없어진 것은 폐기시키는 물건으로 사람들을 취급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영역안으로 경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존엄성을 영두에 두고 죽음의 실제에 대해 매우 어렵지만 필요한 대화를 전국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자비롭고 사랑에 찬 대안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신앙인들은 2000 년 동안 전해 지고 있는, 사랑의 서비스와 영웅적인 행동을 격려하는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오 25:40)

*+ Thomas Card, Collins*

토마스 콜린스 추기경

2016년 3월 1일



## 입법자들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십시오.

이 법안에 대해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CanadiansforConscience.ca](http://CanadiansforConscience.ca) 에 들어가셔서 HealthCARE 와 양심을 위한 연합회에 가입하시기를 권고합니다. 5,000 명이 넘는 캐나다 의사들을 포함한 여러 파트너들로 구성된 이 연합회는 우리들이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연방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염려 하시는 것을 직접 글로 정중하게 표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출된 대표들에게 1)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2)개인이나 기관들이 그들의 도덕적인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설득해 주십시오.